광역도시 성장 견인 '광역교통망 확충' 총력

전주시, 새만금~김제~전주 간 지방도 702호선 국도 승격 · 우아~신리 간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
제6차 국도 · 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정부에 건의… 전북도 · 지역정치권 적극 협업으로 반영 최선

전주시가 강한 경제 구현과 광역도시 성장의 열쇠가 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새만금 지역 간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새만금~김제~전주 간 지방도 702호선의 국도 승격'(38.2km, 사업비 4000억 원)을 건의했다.

또 환상형 외곽순환도로 구축을 위한 '우아~신리 간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4.3km, 사업비 1976억 원)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도 승격 및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예타 수행 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최종 확정된다.

먼저 국도 승격을 건의한 지방도 702호선은 김제시 진봉면(심포항)에서 전주시 덕진구 장동(혁신도시)까지 38.2km 구간의 기존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켜 새만금과 김제, 전주 등 새만금 지역 간 동서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에 이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 등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구 유입과 교통량 증가가 예상돼 이에 대비한 광역교통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새만금~김제~전주 간 지방도 702호선의 국도 승격과 우아~신리 간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건의한 전주 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전체 51.7km 중 완주 신리~전주 용정까지 전주 서남권 외곽순환도로 26.3km 구간과 전주 용정~완주 용진 사이 국도대체우회도로 11.2km 등 37.5km 구간은 현재 자동차전용도로가 개설돼 있다.

여기에 현재 공사 중인 용진~우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오는 2026년 완공되면 9.9km 구간이 더 늘어나 47.4km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된다.

이에 시는 전주 우아~완주 신리까지 나머지 3.7km 구간도 기존 국도 17호선 대신 4.3km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로 별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향후 타당성 검토와 정책성 평가 등을 시행하고, 전북도, 지역정치권과 적극 협업해 지방도 702호선의 국도 승격과 우아~신리 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별로 건설하는 외곽순환도로 구축계획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6월과 9월 전라북도에 각각 지방도 702호선 국도 승격 및 전주시 외곽순환도로 우아~신리 건설을 건의했으며, 그 결과 2개 사업 모두 지난해 12월 전라북도 국책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올해는 △국토교통부 방문 건의(2월) △전라북도에 국도승격 및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요조사 제출(3월) △국토교통부에 익산청 관할 지역 국도 승격 및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사업대상지 제출(5월) 등의 절차를 거쳐왔다.

배회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새만금 지역간 광역교통망 구축과 전주시 외곽순환도로망 전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 연결을 통해 지역 내 물류비용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게 되고 무엇보다 교통 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전북도 및 지역정치권과 긴밀히 협업해 국도 승격 및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 대변혁!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우범기 시장, 효자4동 · 혁신동 끝으로 35개동 순방 마무리

우범기 전주시장은 30일 오전과 오후 '2023년 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 일정으로 각각 LH 전북지사 별관 4층 대강당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2층 대강당에서 효자4동·혁신동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우 시장은 민선8기 시정목표인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의 의미를 설명하고, 전주 대변혁을 위해 전주의 미래 100년 앞을 내다보고 10년을 앞서가기 위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도시·경제·문화·복지 4대 분야의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효자4동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효자4동 행정복합커뮤니티 건립 시 외연 확장 △사회연대상생한마당, 시민 복합문화공간 조성 △효자동 권역 생활체육복합시설 건립 등 주민들의 주요 현안 관심사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어 혁신동에서는 △만성지구 혁신동 경계 조정 △다목적체육센터(라온체육센터 운영) 시정사항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강사비 지원 확대 △기지제 조촌천 정비 등의 건의 사항이 나왔다.

또한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전주 대변혁! 혼자 가면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는 문구의 캘리그라피 액자를 전달하여 이번 35개 동순방을 마무리 하는데 의미를 더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전주의 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서 "전주가 강한 경제를 토대로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대변혁의 꿈을 꾸고, 앞으로도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이어온 '2023년 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은 이날 효자4동·혁신동을 끝으로 35개동 순방을 마무리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하천 산책로 조도개선사업 추진

전주시가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산책로 이용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시는 일몰 이후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야간 활동에 불편이 없는 수준으로 조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나트륨 및 메탈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거나 신설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총사업비 5억2700만 원을 투입해 올 상반기 중 삼천동 농수산물시장 인근 세내교에서 서신동 홍산교까지 나트륨 및 메탈등 113개를 LED 등으로 전면 교체하고,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63개의 가로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후 올 하반기에는 삼천 서신동 홍산교에서 팔복동 추천대 구간 산책로(좌안)에 가로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시는 전주천 한벽교에서 송천동 한양아파트까지 9km 구간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한 후 순차적으로 산책로 조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옥기 기자

동학농민혁명 전주 입성 129주년 기념주간

전주시, 6월 15일까지 다채로운 기념행사 개최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 총본부인 대도소가 설치됐던 전라감영 등에서 동학농민군의 전주입성(5월 31일)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린다.

전주시는 동학농민혁명 전주 입성 제129주년을 맞아 3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리고 미술을 매개로 시민들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을 기억할 수 있는 '제3회 전주동학농민혁명기념 세계혁명예술 국제포럼:혁명의 미술'을 진행한다.

올해 전주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 행사는 31일 오후 7시 전라감영에서 열리는 '제129주년 전주동학농민혁명 전주입성 기념식'을 시작으로 국제포럼(6월 2일), 동학농민혁명 기념 특별미술전시(6월 2일~15일)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전주동학농민혁명기념 세계혁명예술 국제포럼은 전주가 가진 문화예술의 전통과 역량을 가지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혁명적 사건들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먼저 제129주년 전주동학농민혁명 전주입성 기념식은 올해 처음으로 전주시가 직접 기념식을 주최하며, 동학농민혁명에 있어 의미가 큰 장소인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열린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사회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에 맞서 국가를 수호하고자 일어난 민중항쟁으로,

1894년에 동학농민군은 호남의 수부(首府) 전주에 입성하여 전라감영에 대도소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이를 기념해 전주에서는 매년 5월 31일 전주입성일에 기념식이 열려왔다.

이어 오는 6월 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전북대학교 건지아트홀에서 '혁명의 미술: 혁명, 그리고 혁명 그 너머의 것들에 대하여'를 주제로 한 국제포럼이 열린다.

이번 국제포럼에는 농민화가이자 동학농민혁명 연작판화를 일생에 걸쳐 그리고 있는 박홍규 화백이 '동학농민혁명 역사투쟁과 나의 그림'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맡는다.

오후 5시부터는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6월 15일까지 동학농민혁명 특별 미술전시가 이어진다.

국제포럼과 특별 미술전시 외에도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행사를 진행하며, 오는 6월 11일까지 전주한옥마을 동학혁명기념관에서 129주년 기념전시회 및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동학농민혁명은 민중이 주도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전주입성 제129주년을 맞이해 혁명의 미술을 주제로 국제포럼과 특별전시 등 기념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뉴질랜드 출장연수단', 가시적 성과 달성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와 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연수단(단장 송영진 의원)이 뉴질랜드 지역사회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이뤄냈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공무국외연수단 20여 명은 지난 20~27일 뉴질랜드를 방문해 각종 활동으로 교류의 물꼬를 텄다.

연수단은 기존 선진지 견학 중심의 국외 출장과 달리 문화관광, 행정 분야의 관계자들을 만나 업무협약 2회, 동포 사회 및 현지 기관 대표 간담회 6회, 전주지역 작가들의 도서 기증식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영화 '아바타', '뮬란', '메가로돈' 등의 영화를 촬영한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Kumeu Film Studios)의 경우 연수단과 3차례의 만남과 논의를 통해 대표이사가 올해 전주시를 방문하고,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 대한 자문 및 업무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연수단은 뉴질랜드 생활체육회와 간담회 및 업무협약을 통해 전주시에서 9월 개최하는 '2023 BWF 월드시니어 배드민턴대회'에 뉴질랜드 생활체육회 배드민턴 클럽 선수단의 참가를 이끌어냈다.

연수단은 연수의 성과 및 정책 방향 제시 등을 중점으로 한 시민 공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